

출마의 변: “공부하는 학회, 참여하고 싶은 학회”라는 소박한 꿈 실현을 위해....

얼마 전 열린 교육행정학회의 한 세션에서 저는 어느 교수님으로부터 “요즘 대학원생들은 학회에 잘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천한 학회 경험만을 가지고 있었던 저로서도 참 큰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바로 그 학생들이 참여하기 싫은 학회라면, 과연 학회라는 것이 어떤 존재 이유가 있을까?”라는 우려가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학회장이라는 명예로운 소임에 대해서도,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돈도 안 되고, 귀찮은 일만 해야 하는 직분” 정도로 치부하고 외면해 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2008년 9월 교육부에서 고려대학교로 자리를 옮기면서 제가 경험해 왔던 우리 교육행정 학계 교수들의 문화를 솔직히 고백하자면, 입직 이후 학문 발전에 정진하기보다는 (1) 자의/타의로 교내외 보직과 각종 잡무에 동원되어 학문적 역량을 소진하며 지쳐가거나, (2) 수시로 주어지는 정부 평가와 위원회 참여 그리고 정책 연구 등 기능적 역할에 매몰되어 가면서 각자 도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이런 일반적 경로를 어쩔 수 없이 거쳐나가면서 몸과 마음이 소진된 적이 적지 않았지만, 이런 과정에서도 “교육행정 전공 학자로서 퇴직 전까지 제가 반드시 해야 할 의미있는 일은 무엇일까?”라는 고민과 성찰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저는 2018년 “한국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연구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이분법적 배타성 극복을 통한 대안적 지점의 모색을 중심으로(교육행정학연구, 36/4)”라는 졸고를 통해 생각을 정리한 후, 저 나름의 실천에 나섰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학계에 내재하는 고질적인 문제점인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1) 교직원들의 현장 연구를 통해 이론과 실천 간의 접점을 늘려나가야 한다; (2)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현장에 터하여 우리 행정 현실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질적 연구방법론 활용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3) 학교별 교수가 제한된 우리 현실에서는, 학회라는 공유 플랫폼을 통해 이런 생각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COVID-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때마침 보편화된 온라인 교육과 미팅은 이러한 저의 구상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상황적 조건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한편 2020년 출범한 연구방법론위원회와, 2022년 시작한 세대교류위원회 참여는 제게 또 다른 가능성을 보게 해 주었습니다. 모두들 바쁜 가운데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온/오프라인으로 모여 체면과 허식보다는 내용 중심의 가감 없는 비판과 격려를 통해, 이제까지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했던 학문공동체 차원의 협업과 생산적 토론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회의적으로만 생각했던 동문과 세대를 뛰어넘은 선후배 교수들 간, 중견 vs. 신진 교수들 간의 격의 없는 토론과 학습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는 살짝 가슴이 뛰기도 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모임으로 개최된 세대교류위원회의 경우, 모임의 횟수가 늘어갈수록 대학원생 참여자들의 숫자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관심 있는 주제와 접근성만 뒷받침된다면 대학원생들도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학회에 나오는구나”라는 희망과 기대를 동시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험과 식견이 부족한 것을 스스로 잘 아는 제가 52대 교육행정학회 부회장 후보로 나서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소박한 꿈을 실현하는데 교육행정학회가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겠다는 믿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다음과 같이 학회를 운영하여 가장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 달성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공부하는 학회, 참여하고 싶은 학회”를 꼭 이루어 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실제 교육행정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 연구 활성화

-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1) 지역별, 주제별 교사/대학 현장 실무 연구자(연구교수, 행정직원) 연구 네트워크 강화; 학교/대학 현장 개선을 위한 교사/대학 교직원 연구 모임 운영 및 연구 수행 결과를 월례 모임 및 연차 학술대회에서 공유하고 우수 연구에 대해서는 시상토록 함;
- 온/오프라인 전달 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급적 관심이 있는 현장 실무 연구자들이 연구 결과 공유 행사(월례 모임 및 연차학술대회)에 가급적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 접근성 강화

2. 학문 후속세대들과 중견 연구자들 간의 학문을 통한 교류 활성화

- 학회 행사 중에 중견 연구자와 학문 후속세대 회원들 간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문 후속세대 회원들은 원하는 멘토를 선택하여 연구 조언, 진로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연구 관심사와 전문 분야에 따라 주제별로 신진연구자들로 구성된 정기적인 연구 발표 및 토론 포럼을 운영하여 연구 결과물과 아이디어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함; 중견 연구자들은 토론에 참여하여 피드백과 조언을 제공하고, 학문 후속세대들과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함
- 학부/대학원생 등 학문 후속세대 회원들의 학회 행사 참여와 봉사 기회 확대를 통한 역량 개발

3. 학회 내외부 연구방법론 전문가 자원 활용을 통한 온/오프라인 연구방법론 교육 공유 플랫폼 구축

- 현재 학문 후속세대들에 대한 양적/질적연구방법론 교육은 개별 학교에서 제한적으로, 혹은 정규 학교 교육과정과 별도로 외부 기관에서 비싼 비용으로 제공되고 있음
- 학회 내외부의 전문가들을 활용, 온/오프라인 연구방법론 세미나와 헬프 세션 운영을 활성화; 특히 세미나/워크숍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학생들이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함

4.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회원 연구 성과의 체계적 축적과 연계를 강조하는 학술행사 지향

- 연차학술대회 기획 발표 주제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설정하여, 발표자들이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 학습을 한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지원
- 회원들이 출간한 우수 논문/단행본에 대한 학습 모임 운영: 저자 발표 및 비평자 토론과 함께, 모든 학회 회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심층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월례 모임으로 운영
- 현안 교육정책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제시 등 학회 활동으로 창출된 지식의 체계적 축적과 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5. 학회 회원들의 학문적 성취에 대한 공동체적 인정과 보상 기제 활성화

- 소석논문상' 외에, "올해의 학위 논문상", "올해의 저서상" 등을 신설하여 회원들의 연구업적에 대해 학회 차원의 공동체적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보상 기제 활성화

6. 수익 창출 활동, 스폰서십과 회원 기부 확대를 통한 학회 재정 안정화

- 연구방법론 워크숍과 교재 출판, 종이 문서의 디지털화, 온라인 행사 확대, 정부/기업 등과의 스폰서십 강화를 통한 추가적 지원 확보 등을 통해 학회 재정의 안정화 도모